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구원의 주,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시편 77:1-20)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이스라엘에 관한 정직한 시로 알려진 시편 77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고통의 날을 회상하며 긴 역사적 사건을 연상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은혜롭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랫동안 아무런 긍휼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자기 백성을 거절하신 것 같고, 이 거절은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 시는 1-9절, 10-20절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시인의 절망을, 후자는 위를 향한 재출발을 말합니다.

### 1. 밤중에 외침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2절).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생애 속에서 또는 국운이 쇠해 가는데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시인은 과거를 기억하며 밤에 손을 들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손은 항상 빈손이었습니다.

스펠전 목사는 시편 77편을 주석하면서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이 말씀들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밤의 침묵으로 우리 몸의 고통과 영의 고뇌가 소강상태에 놓이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종 아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시를 주석하는 나는 그의 슬픔과 함께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영혼의 깊은 골짜기와 고독한 동굴을 통해 내 영혼은 당신의 두려운 면을 알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 ‘내가’ 라는 말은 5회, 대명사 me, 또는 my는 2회 이상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느낀 것을 주께 아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는 절망을 반복하면서 거기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과 같이 우리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밝은 날에 어두운 기억들

아삽은 3-6절에서 절망적인 마음 상태를 조금 더 말합니다. 5-6절에서 밤에 부른 노래, 즉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행복했던 과거를 묵상하면서 그에게 고통이 왔음을 말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아삽이 선택한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전과 같이 가까이 계시지 않으심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연에 있는 아삽의 기도는 첫 연의 것과 약간 변화는 있으나 아직도 ‘내가’ 라는 말이 6회, ‘나의(my)’가 4회나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기도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 매우 흡사합니다.

### 3. 여섯 가지 질문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7-10절).

**현재의 환란으로 인해 회의와 갈등을 느끼는 성도가 그것을 떨치고 신앙을 회복하여 용기와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총을 하나씩 회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침내 아삽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를 버리실 것이 두려웠고 이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렁에 빠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은 한 번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사랑을 그칠 수 있으신가? 주님의 성품이 바뀌어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 대답은 물론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시며 자기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롬 3:4)라고 한 바울의 말은 진리입니다.

### 4. 확신과 찬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10절).

시인이 하나님의 섭리에 회의를 느낀 것은 전적으로 시인 자신의 연약함, 또는 잘못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고 그 행

사를 진술하며 하나님을 목상하며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현재의 환란으로 인해 회의와 갈등을 느끼는 성도가 그것을 떨치고 신앙을 회복하여 용기와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총을 하나씩 회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음의 3가지로 기억합니다.

- 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13절).
- ② 하나님은 위대하시다(13절).
- ③ 하나님은 돌보신다(15절).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출애굽 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모세는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였나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 뿐 아니라 목자 없는 양떼 같은 그들의 후손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리의 소굴과 같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홍해의 물들이 주님 앞에서 갈라지듯, 대적하던 세력들은 주 앞에서 소멸되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하거늘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의심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한 것입니다. 시인은 고뇌 중에 하나님의 행적을 회상하면서 흔들리는 신앙을 확고히 하고 가슴 속에 일어나는 의문을 소망의 찬양으로 전환합니다. 의문이 깊었기 때문에 그의 찬양은 그만큼 드높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드높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오늘 찬양대원 임명

우리교회는 오늘 주일예배 시간과 찬양예배 시간에 찬양위원회 소속 각 찬양대원을 임명한다.

오늘 찬양대원으로 임명받는 섬김위원들은 기도와 감사함으로 세움을 받아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기회로 삼도록 기도한다. 각 찬양대원 명단은 오늘 주보와 함께 삽지로 배포되었다. 수요일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은빛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는 지난 5일(수)에 임명하였으며 호산나 찬양대는 12일(수) 수요일예배 시간에 임명한다.

한편 오늘 찬양예배는 우리교회 모든 찬양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대원 헌신예배로 드리고 특별 순서로 웰리스트 정명화 교

수(한국예술종합학교)의 순서로 준비된다. 정명화 교수는 우리에게 정명훈, 정경화와 함께 '정 트리오'라는 이름과 함께 잘 알려져 있는 세계 정상의 연주자이다.

### <찬양대원 임명순서>

- 1부 예배: 가브리엘 찬양대
- 2부 예배: 할렐루야 찬양대,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 3부 예배: 임마누엘 찬양대, 아벤 관현악단, 필그림 중창단
- 찬양예배: 베들레헴 찬양대, 갈렙 찬양대, 글로리아 중창단, 예비 지휘자, 예비 오르가니스트, 예비 피아니스트, 찬양대양성반, 새벽기도 피아니스트, 금요철야 피아니스트, 예루살렘 찬양대

## 2008년 순결서약식

### 1월6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2008년 순결서약식이 행해진다. 순결서약식은 우리교회가 13세 이상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 11:44)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매년 초 첫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거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3세 이상 미혼의 남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순결서약식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신청서는 각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와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접수는 12월23일(주)까지 받는다. 순

결서약식 접수 시에 후견인의 이름도 함께 기재하기 바란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이종윤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우리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가장 먼저 1995년 첫 주에 서약식을 개최한 이래 14년째 계속하여 갖고 있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 실로암 안과 병원에 개안수술비 전달하다

### 11월28일(수)에

우리교회 구제위원회(위원장 왕경래 장로)는 지난 11월25일 9대 장로 임직식 및 선교사 파송식이 거행된 찬양예배 시간에 드린 헌금 전액(5백만 원)을 실로암 안과병원(원장: 김선태 목사)에 개안수술비로 전달하였다. 실로암 안과병원장 김선태 목사는 개안수술비 30만원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무료 개안수술을 하고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을 위해 귀한 헌금으로 후원해 주시는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와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우리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기도한다.

## 새가족환영회

### 15일(토) 오후 5시 - 801호 만나홀

2007년 제3차 새가족환영회가 15일(토) 오후 5시 801호 만나홀에서 열린다. 이번 새가족 환영회는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우리교회에 등록된 모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천국시민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한다.

## 2008학년도 호산나대학 입학 축하합니다

지난 11월 24일(토) 2008학년도 호산나대학 입학 시험이 서울교회 9층에서 있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이 재학 중인 많은 학생들이 호산나대학에 지원, 이날 뜨거운 열기로 입학시험을 치렀다. 입학시험은 언어영역, 수리영역 및 구술면접 등 학생들의 다양한 영역 이해정도를 알아보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대체로 어려움 없이 시험을 봤다고 한다. 이날 입학시험에서는 2007학년도 제1대 호산나대학 학생회 임원들이 후배들의 합격을 응원하기 위해 플렌카드, 초콜릿 및 따뜻한 차를 준비하여 후배들을 격려했다.

최종 합격은 지난 11월 29일(목) 본 학교 홈페이지, 전화 및 문자서비스로 총 17명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 합격자 등록기간은 12월3일(월) ~ 12월 14일(금)까지 2주 동안 이뤄질 예정이다.



## 새해에 바뀌는 것들

지난 7일(금) 우리교회 당회는 2008년도를 준비하는 목회정책 발표회 시간을 갖고 각 부서의 목표, 시행 프로그램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새해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1. 경배찬송은 3장으로 한다.
2. 21세기 새찬송가를 주보에 병기한다.
3. 당회 임명 받지 않은 사람은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수 없다.
4. 교사는 규정집에 있는 교사자격자를 추천한다.
5. 성찬식시 영아부 교사도 교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6. 유치부 이상 모든 교회학교에서 선교사 1인 이상 기도 후원을 한다.
7. 성경 일천독 운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특별성경통독사경회를 실시한다.(본지 4면 참조)
8. 디아스포라부 회원도 새가족부를 수료하고, 지역 다락방에 참여한다.
9. TV 방송 시 수화 통역도 함께 한다.
10. 농이인 제직 추천도 한다.

## 웨스트민스터 홀에도

### 파이프 오르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1대 추가 한다

우리교회 당회는 각종 예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도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기로 하고 여러 회사에 입찰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사용량이 많아 2층과 8층을 연결하는 급행 엘리베이터를 한티공원을 바라보며 탈 수 있도록 설계 중이다.

## 제1기 설교사역 도고 세미나

### 12월 9일~30일, 주일 오후 3:30 609호

제1기 설교사역 도고 세미나가 열린다. 이종윤 위임목사의 설교사역을 위해 도고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여야 한다. 강의내용은 도고사역의 의의, 도고의 특권과 의무, 도고의 승리의 모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고, 설교사역 도고의 중요성 등으로 이루어진다. 수료는 12월 30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하게 되며 강사로는 정수길 목사가 서게 된다.

## 찬양기타 반주법 강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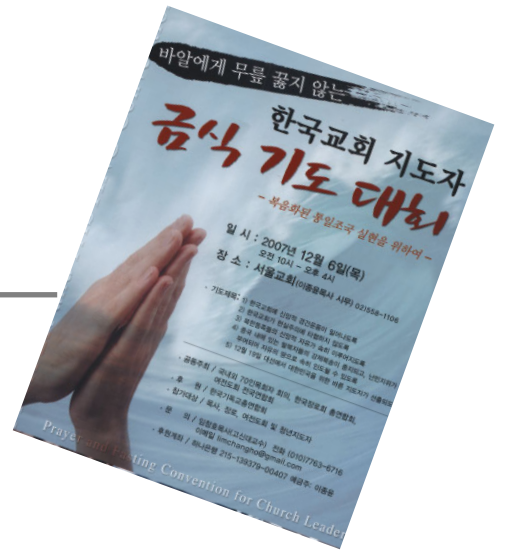
교회와 가정에서 찬양을 생활화하고 찬양반주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찬양기타 반주법 강습(기초반 1과정)이 16일(주) 9층에서 열린다.

강습내용은 찬양반주를 위한 기본 리듬을 배우고 15개 이상의 코드를 배우게 된다. 기간은 3개월이고 수강료는 1만원(교재대, 학습비품비), 장운식 집사가 강사로 선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비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 금식기도대회 - 주제강연

# 복음화 된 통일조국이어야 합니다



“진실, 공평, 정의로운 나라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 나라  
성경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나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는 나라.”



▶ 주제 강연 중인 이종윤 목사

지난 12월6일(목) 비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국교회 지도자 금식기도대회에서 이종윤 목사는 복음화 된 통일조국이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 강연을 하였다.

엘리아 시대에 비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 명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비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비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를 내리고 다산의 축복과 농사의 풍요도 비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신앙보다 피조물인 비알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남북분열의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이 백성들의 통일의 주체는 남 유다도 북 이스라엘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 성전 건축과 재건 사업에 온 이스라엘이 참여할 것을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뭉쳐서 성전을 재건하고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며 다윗 왕조의 백성들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8.15 해방은 하늘이 준 떡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인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며 우리는 긍지와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북쪽에서는 지상낙원을 꿈꾸며 공산주의 비알을 섬겨왔고, 남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통해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으나 세속주의 물결에 또 다른 비알신을 섬기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 허상과 세속주의의 망상 즉 비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북한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비알 종교적 공산주의 허상과 세속주의를 배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건설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이란 제국주의적 기독교 국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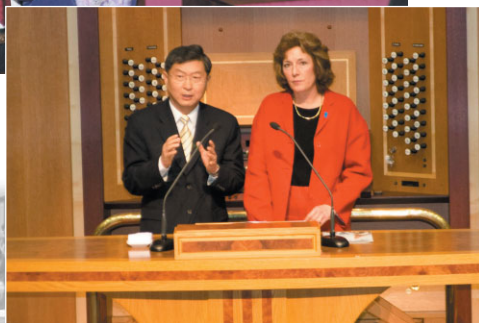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진실, 공평, 정의로운 나라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나라이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는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나라 건설을 위해 주님의 대명령을 실천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하신 주님의 분부를 따라 북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예배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의 성취를 위해 우리는 산제사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자신은 철저한 회개를 그리고 오염된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변형시키고 하나님 신앙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 같은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은 비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 북한 실정을 강연하고 있는 수잔 솔티 여사와 손인식 목사





# 특별찬양



정명화 교수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세계무대에서 정상급 활약을 하고 있는 첼리스트 정명화 교수의 연주를 중심으로 첼로와 Mezzo Soprano 그리고 피아노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음대를 거쳐 제네바국제콩쿨 우승, 샌프란 시스코 심포니재단콩쿠르 우승, 마네스 음대 교수, 유엔마약퇴치기구초대전선대사 등 국제무대에서 활약은 이루 다 열거 할 수 없다. 깊고 우아한 음색과 정교한 기교는 모든 첼리스트의 규범이 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Cello에 맞추어 노래할 M. Soprano 김정희 교수는 연세대 및 독일 아우스부르크 음대 대학원에서 Bach의 칸타타 등 정통 교회 음악과 Brahms, Mahler 등 독일 리드(Lied)를 전공 하였다. 미국 시카고의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며 Chicago Ladies Cappella 합창단의 지휘자로 활동하다가 귀국하여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의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우리교회 가브리엘 찬양

이어진다.

정명화 교수는 우리에게 정명훈, 정경화와 함께 정 트리오 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줄리어드

대 지휘자이다. 피아노 반주의 이현주 선생은 초등학교 시절 미국에 건너가 성장 하였다. Illinois 주립대학(학사)과 시카고 North Westem Univ. (석사)를 거쳐 보스턴 New England Conservatory의 박사논문과정 중에 있으며 2006년 귀국하여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로 재직 하면서 2007년도 서울 국제음악콩쿠르 공식 반주자로 활동 중이다.

오늘 저녁에는 첼로 독주곡 M. Bruch의 Kol Niedrei (신의 날) 외에 두곡으로 찬양 드린다.



## 성탄 트리 불 밝힙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지하철 대치역에 성탄 축하 트리를 설치합니다. 오가는 시민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고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오후 1시에 대치역 2번출구 개찰구 앞에서** 우리교회가 시행하는 점등식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일천독 대장정에 동참하며...

# 약속의 사진

## 임광우 성도(4교구)

고향 대구에서 근무지 때문에 얼떨결에 오게 된 서울, 그리고 2006년 1월 주님의 뜻에 따라 등록하게 된 서울교회.

처음 약간은 두렵고 낯 설은 교회 분위기와는 달리 한 두해 다닐수록 따뜻하고 은혜로운 목사님 말씀과 성도들의 푸근함, 그리고 나의 가족들이 잘 적응하며 생활하고 있음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요.

출석 첫날부터 새록새록 영상처럼 떠오르는 기쁨의 전율. 새가족부에서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로 맞아주시던 한 분 한 분들 또한 4-3 다락방 식구들의 가족 이상의 환대와 분에 넘치는 관심과 사랑에 크게 감동하여 벅찼던 일들, 이젠 매주 다락방 식구들과 교제하며 성경공부 하는 것이 기다림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후로 섬기고 있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활기 넘침과 적극적으로 서로를 섬기며 봉사



하는 형제자매들의 모습도 참으로 가슴 뭉클합니다.

그리고 가장 감격스럽고 뜻 깊었던 일은 금년 성경일천독 대장정에 붙게 된 나의 사진 한 장. 늘 마음 한 구석에 낯설고 불청객처럼 이방인 같다는 느낌이 한반도 지도 속에 나의 사진 한 장으로 아! 이제 나도 서울교회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하는 감격과 뿌듯함이 온 몸에 넘쳐나며 평안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어 한 가족 되게 하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수 14:12) 내 사진 아래 감추어진 복讎 땅 내게 주신 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교회 성도들의 사진으로 한반도를 넘치도록 채울 때 우리의 기도로 이 강산, 이 산지를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1일(화) 한국군선교 신학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12일(수) 총회 기독교 대학위원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13일(목) 장로교 신학회 월례 발표회를 소집한다. 신앙세계 창간 47주년 기념 예배 설교를 한다.

- 득녀 : 최미연, 권오식 성도 가정(10교구)
- 수상 : 김재근 집사(10교구) 대통령상-300만불 수출탑 수상
- 승진 : 김영빈 집사(2교구)/ 대우ST 사장
- 발령 : 오유록 성도(12교구) LG전자 독일 지사 발령
- 이사 : 최근자 권사(12교구)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경남 100-405 T.019-269-4995

- 주간식당 봉사 : 에스더전도회(12.9) 한나 전도회(12.16)
- 금주의 식사 : 임승자 권사 가정(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특별성경통독사경회 개최

12월18(화)~20(목), 26(수)~28(금), 501호

성경일천독대장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특별 성경통독사경회를 개최한다. 12월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장소는 501호이며, 부교역자들이 통독자로 서게 된다. 아직 완독을 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12월18일(화) 오전8시-오후5시(8시간) 예레미야-요나
- 12월19일(수) 오후1시-오후5시(4시간) 미가-마기복음
- 12월20일(목) 오전8시-오후5시(8시간) 누기복음-골로새서
- 12월26일(수) 오후1시-오후5시(4시간) 데살로니가전서-계시록
- 12월27일(목) 오전8시-오후5시(8시간) 창세기-민수기
- 12월28일(금) 오전8시-오후5시(8시간) 신명기-사무엘하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08년 섬김위원으로 임명된 이들에게 성령충만, 은혜충만토록
2. 2007년도 승리로 마무리 하도록
3. 12월19일 대선 무사히 이루어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